

2025년도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2025년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대하면서 축하하는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advent입니다. 이 말은 도착과 오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두 귀로 듣도록 역사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예수님이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아이들과 똑 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웃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예수님이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예수님이 두 발로 걷고 나귀를 타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님이 나무를 켄 정도의 힘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하시는 나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시는 인간 예수님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인간의 약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2025년도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두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12월 1일 2025년

NCKPC 회장 한태진목사 드림